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다양한 ICT 관련 사회 현상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빠른 IT보다는 바르고 건전한 IT 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융합 ICT 연구소를 지향합니다.



BARUN ICT Research

2025 악성댓글의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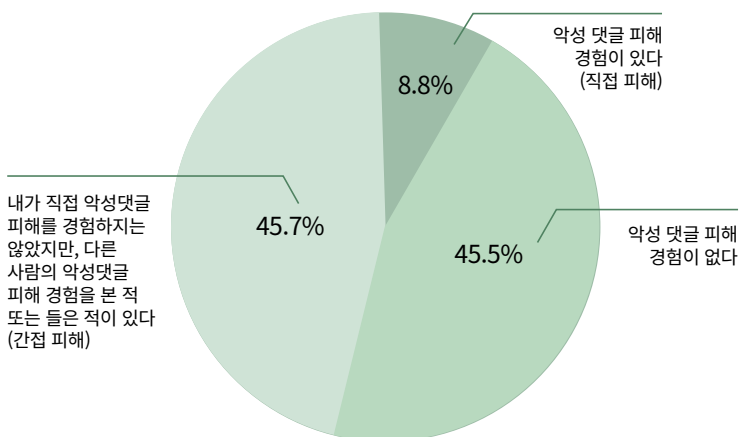
국립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김미예 교수

바른ICT연구소 악성댓글 연구반 자문위원

‘악성댓글’은 인터넷, SNS 서비스 댓글란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인신공격적 발언 등을 게시하여 공개된 것으로 특징인이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글로 정의한다. (바른ICT연구소, 2024)

소셜미디어는 시간, 장소의 한계 없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콘텐츠가 공유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개인의 루머, 비난, 협박 등 악성댓글과 같은 콘텐츠도 무분별하게 게시되며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인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대중들에게 악성댓글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많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현재 악성댓글 현황 파악과 악성댓글 분석을 통해 소셜미디어에서 건전한 게시글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본 시리즈를 기획하였다. 2024년 12월 전국의 만 20-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댓글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총 3회에 걸쳐 악성댓글의 현황, 악성댓글 생성의 동기,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2022년 간접+직접 피해 경험 46.5%
- 2023년 간접+직접 피해 경험 52.0%
- 2024년 간접+직접 피해 경험 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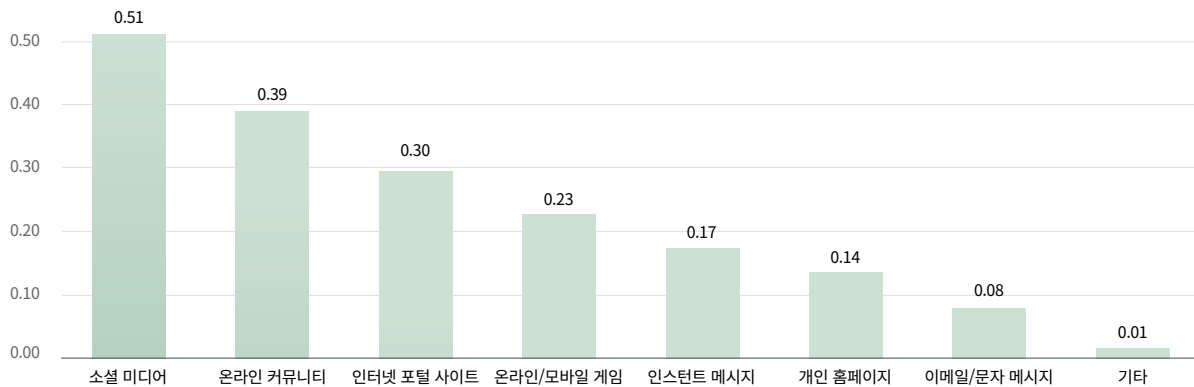
<그림1> 2024년 악성댓글 피해 정도

악성댓글 피해 경험은 어느 정도인가?

악성댓글 피해 경험은 2024년 연말 기준 54.5%로 조사되었다 (그림 1). 직접 경험한 8.8%와 다른 사람의 악성댓글 피해 경험을 보거나 들은 간접 경험 45.7%를 포함한 수치이다. 2024년의 피해 경험 정도는 과거 2022년 46.6%, 2023년 52.0%와 비교하여 악성댓글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악성댓글 사전 노출 방지 서비스 개발 시 사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86.1%가 해당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악성댓글로 인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악성댓글 경험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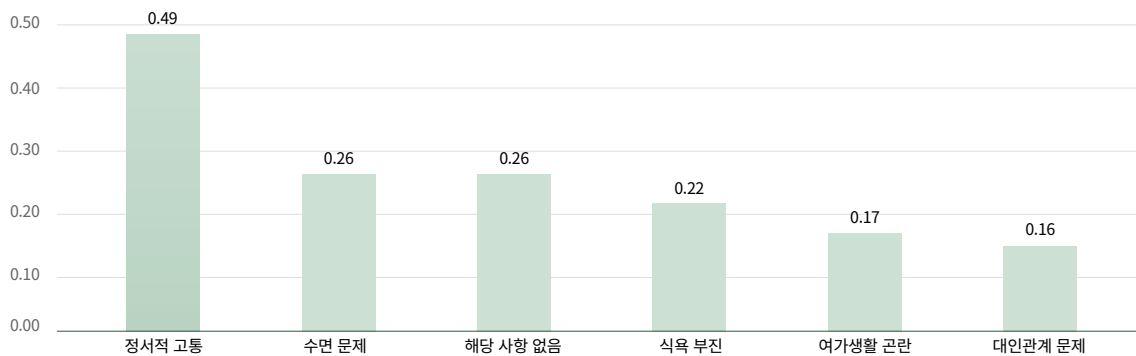
악성댓글 피해 경험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 소셜미디어 51%, 온라인 커뮤니티 39%, 인터넷 포털 사이트 30%, 온라인/모바일 게임 23%로 나타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악성댓글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본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디지털 매체로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의 긍정적인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정책적인 논의가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2> 악성댓글 경험 경로

악성댓글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악성댓글 피해 경험자들이 겪는 문제는 정서적 고통 49%, 수면 문제 26%, 식욕 부진 22%, 여가생활의 어려움 17%, 대인관계 문제 16%로 정서와 신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 장애, 우울증, 스트레스를 동반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생산성 감소, 학업 성취 능력 감소 등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악성댓글의 정책적, 법률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3> 악성댓글로 인한 부정 경험

소셜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악성댓글을 받은 이용자들에게 누구로부터 악성댓글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82%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악성댓글을 받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본 결과는 자유롭게 타인의 계정에 쉽게 글을 남기는 공론장으로서의 소셜미디어 역할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주요 특징으로 익명성 64%, 쉬운 접근성 52%로 답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누구나 쉽게 의견을 공유하는 긍정적인 공론장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루머가 쉽게 공유될 수 있는 장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악성댓글 작성 동기를 살펴보고, 악성댓글 관리를 위한 이용자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뉴스레터 다음 호를 통해 이러한 악성댓글을 누가 왜 작성하는지,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댓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필자 소개

김미예

연구 관심분야 : 소비자 경험, 노년 소비, 악성 댓글, 외로움과 소비, Information Diversity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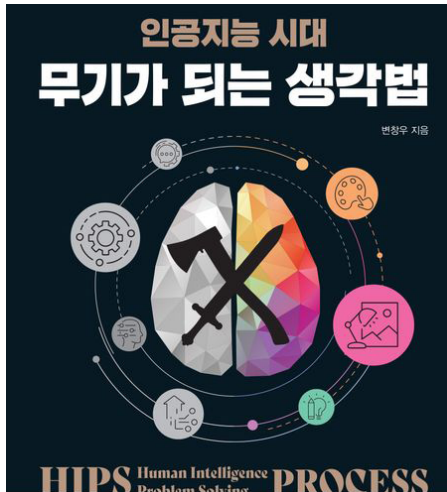
2022.3 ~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2022.3 ~ 현재 Global Marketing Conference Proceedings Editor
2019.3 ~ 2022.2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수상

2024 국립창원대학교 강의우수교원 수상
2024 KSMS International Conference Best Conference Paper Award
2023 Psychology and Marketing Award
2022 ANZMAC Conference Best Paper in Track Award

AI 시대의 사고법: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HIPS컨설팅 변창우 대표



“AI 시대를 헤쳐갈 리더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박용현(TBWA KOREA 조직문화연구소 대표, '여덟 단어', '책은 도끼다' 저자)

SAY KOREA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고방식도 진화해야 한다. 자동화가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AI가 창의적 영역까지 확장되는 지금,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사고해야 할까? 과거 기술 혁신이 사회와 조직을 변화시켜 온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필요한 사고법이 보인다. "인공지능 시대 무기가 되는 생각법" (변창우 지음)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며, AI와 협업하는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 해결 방식과 사고의 유연성을 탐구한다.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저자는 북콘서트에서 AI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틀을 활용하되, 중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과거 19세기 사진 기술의 도입이 미술계에 인상파를 탄생시킨 것처럼, AI의 발전 역시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한다. 또한 AI가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중간 관리자 계층이 줄어들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었다.

특히 AI 활용 방식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흥미로웠다. AI를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전적으로 AI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AI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인간이 최종 검증을 수행하는 '사이보그형 사용법'이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는 실험 결과가 소개되었다. 이는 AI가 완벽하지 않으며,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SCQA, MECE, HIPS 모델은 AI 시대에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 소개되었다. SCQA 모델(Situation, Complication, Question, Answer)은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해결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먼저 상황을 분석한 후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핵심 질문을 도출한 뒤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I 도입으로 창의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다면, 'AI와 인간의 협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해결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다.

또한, MECE 원칙(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은 문제를 중복 없이 빠짐없이 분류하여 논리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AI 활용 방식에서도 자동화 가능한 작업과 창의적 판단이 필요한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HIPS 프로세스(Human Intelligence Problem Solving)는 문제를 구조화하고 탐색하며 해결책을 개발하는 체계적 접근법이다. 이는 기존의 컨설팅식 해결, 디자인 씽킹, 데이터 분석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통합적 문제 해결법으로, 사고의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북콘서트는 AI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AI와 협업하는 능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가 미래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성과의 확산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리 |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노환호 연구교수

AI 추천 시스템, 인간의 선택을 모방할 수 있을까?

KAIST 경영대학 신은철 교수



AI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인간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AI가 경제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효과적인 추천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AI 판단이 인간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실험 경제학 접근법을 통해 탐구한 연구가 소개되었다.

연사인 신은철 교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단순한 언어 기반 AI를 넘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AI가 인간의 실제 선택 데이터를 학습해 개인 맞춤형 추천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 추천이 인간의 선택 패턴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분석했다. 실험은 AI가 인간과 유사한 경제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팀은 OpenAI의 GPT 모델을 활용해 AI가 인간 투자 데이터를 학습하고 개인별 맞춤형 추천을 수행하는 실험을 설계했다. AI 추천 결과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효용 극대화(Utility Maximization) 원칙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AI는 인간 선택 패턴을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과거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인간과 유사한 선택 경향을 보였다. 이는 AI가 단순한 패턴 인식을 넘어 행동 경제학적 요소까지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에서는 AI가 추천을 수행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간 선호를 반영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 실험 조건을 설정했다. AI가 데이터 없이 추천을 수행하는 경우, 인간 선택 데이터를 일부 학습한 후 추천하는 경우,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를 학습한 후 추천하는 경우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AI는 인간 선택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더욱 정교하게 추천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기에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한 패턴 분석을 통해 추천했으나, 데이터 학습량이 증가하면서 인간 선택 패턴과 점점 더 유사한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AI가 개인화된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추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구는 AI가 인간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인간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단순한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본능적인 회피 성향이 나타난다. AI는 이러한 인간의 감정적 요소를 완벽히 학습하지 못했다. 특히 기존 경제 이론에서 벗어난 예외적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간은 때때로 직관적 판단이나 감정적 요인을 기반으로 예상과 다른 선택을 한다. 반면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논리적인 선택을 하므로, 인간이 보이는 예외적 행동을 재현하지 않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AI가 충분한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할수록 추천 정확도가 급격히 저하되었다. 이는 AI 기반 추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는 AI가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 추천 시스템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데 강점을 지니지만, 인간의 직관적 판단이나 비합리적 요소를 완벽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데이터 기반 분석과 인간의 최종 검토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필요하다. AI가 경제적 의사결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실험 경제학이 AI 역할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이번 연구는 보여준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과 AI 협업이 더욱 필수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리 |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노환호 연구교수

새로운 연구진, 바른ICT연구소와 함께합니다



김초해 연구교수

김초해 연구교수는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도서관 경영 및 마케팅으로 문헌정보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학위논문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인지된 도서관 혜택과 도서관 성과의 관계에서 사서직 브랜딩의 매개효과 연구’를 통해 직업 브랜딩에 기반한 사서직 브랜딩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도서관을 통해 혜택을 인지할 때 사서직의 가치, 나아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향상함을 밝혔습니다.

발표한 논문으로는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인식하는 사서 전문성의 매개효과 연구: 도서관 활동 경험이 도서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술정보자원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연구 -일반인의 정보요구와 행위를 중심으로-’, ‘What makes a “happy” workplace for librarians? Exploring the organizational functions of academic libraries in South Korea’, ‘해외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동향 분석’,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사서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관계 혜택과 사서 및 도서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해석현상학적 분석을 적용하여-’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보 이용 행태 및 참고정보서비스의 변화에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오정보 수용 및 이용 요인 분석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노병규 교수

노병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정보보호 연구기관과 정책 실행기관에서 실무를 쌓아온 정책 전문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부초기기술부(現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암호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며 국내 초기 정보보호 연구를 선도한 연구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정책기관인 한국정보보호센터(現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정보보호 평가기준과 평가 방법론을 도입하여 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해외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정보보호 평가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greement) 체계에 성공적으로 편입시키고 이를 정착시켰습니다.

2003년, 한국 인터넷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된 1.25 인터넷 대란 당시 합동조사단 간사를 맡아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국가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민간 전문가 공모직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PM을 맡아 국가 정보보호 연구개발(R&D) 기획, 참여기관 선정 및 평가를 총괄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복귀 후,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당시 정보보호본부장으로서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TF에 참여하였습니다. 16개 부처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인프라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초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후 경영기획본부장 재임 시, 기관 최초로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한국정보처리학회 부회장,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개인정보 혁신인재양성사업단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로 활동하며 실무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여 후진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연구 관심 분야는 가짜 뉴스 확산의 분석 및 차단 기술,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문제 등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존에 고려하지 못한 다른 형태의 침해가 나타나는 점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성인 ADHD 위험 높인다

장순범 인턴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알림과 메시지에 시선을 빼앗긴다. 출근길에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업무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SNS를 열고, 집중해야 할 순간에도 자꾸만 스마트폰에 손이 간다. 해야 할 일이 쌓여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이 행동, 혹시 나도 ADHD일까?

최근 성인 ADHD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ADHD로 진단 받은 성인은 5년 만에 92.9% 증가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 특히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사용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1].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되면서, 청소년기 디지털 사용 습관이 성인이 된 후에도 주의력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성인이 된 후 ADHD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일까?

디지털 환경과 ADHD의 관계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가 ADHD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2].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게임, SNS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좋아요, 푸시 알림 등 반복적인 자극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도파민 분비를 지속적으로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3]. 특히, 청소년기에 이러한 환경에 지속 노출되면,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 장기 집중력을 유지하는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집중력이 저하되고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며 ADHD 유사 증상이 증가할 수 있다.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연구팀이 15-16세 청소년 약 2600명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디지털 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이 ADHD 증상을 보일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 디지털 과의존이 단기적인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DHD 주요 증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ADHD 증상을 보인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주의력 결핍과 충동 조절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으며, 결국 성인 ADHD를 진단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5]. 또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서는 SNS 사용 시간이 하루 2시간 이상인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생 위험이 1.5배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6]. 이는 디지털 과의존이 정서적 안정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인 ADHD 예방을 위한 청소년기 개입의 필요성

디지털 과의존은 ADHD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불안장애,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Twenge & Campbell(2018)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이상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우울감과 불안을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진 청소년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좌절을 경험할 때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성이 ADHD 증상과 결합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주의력 문제와 충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기 디지털 과의존이 성인 ADHD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7]. 특히, 학습 환경에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주의력 조절을 돕는 명상과 마음 챙김 훈련(MBCT,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은 ADHD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8]. 또한, AI 기반 정신 건강 관리 챗봇(Woebot, Wysa 등)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사용 습관을 건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AI 챗봇은 청소년들에게 개인 맞춤형 상담과 지도를 제공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AI 챗봇을 활용해 주의력 훈련과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 진료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 [2] Montag, C., Walla, P. (2016). Carpe Diem Instead of Losing Your Social Mind: Beyond Digital Addiction and Why We All Suffer From Digital Overuse. *Cognitive Computation*, 8(2), 225-227.
- [3] Oscar Arias-Carrion, Maria Stamelou, et al. (2010). Dopaminergic reward system: a short integrative review. *International Archives of Medicine*, 3(24).
- [4] Ra, C. K., Cho, J., Stone, M. D., De La Cerda, J., Goldenson, N. I., Moroney, E., Tung, I., Lee, S. S., & Leventhal, A. M. (2018). Association of digital media use with subsequent symptoms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mong adolescents, 320(3), 255-263.
- [5] Biederman J., Petty, C. R., Evans, M., Small, J., Faraone, S. V. (2006). Young adult outcome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 controlled 10-year follow-up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36(2), 167-179.
- [6] Orben, A., & Przybylski, A. K. (2019). Screens, tee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from three time-use-diary studies. *Psychological Science*, 30, 682-696.
- [7] Twenge, J. M., & Campbell, W. K. (2018). Associations between screen time and lower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Evidence from a population-based study. *Preventive Medicine Reports*, 12, 271-283.
- [8] Zylowska, L., Ackerman, D. L., Yang, M. H., Futrell, J. L., Horton, N. L., Hale, T. S., Pataki, C., & Smalley, S. L. (2008). Mindfulness Meditation Training in Adults and Adolescents With ADHD: A Feasibility Study.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11(6), 737-746.
- [9] Fitzpatrick, K. K., Darcy, A., & Vierhile, M. (2017). Deliver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to young adults with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using a fully automated conversational agent (Woebot):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MIR Mental Health*, 4(2), e19.

1분의 유혹, 숏폼이 당긴 방아쇠: 20대 스마트폰 과의존

이건우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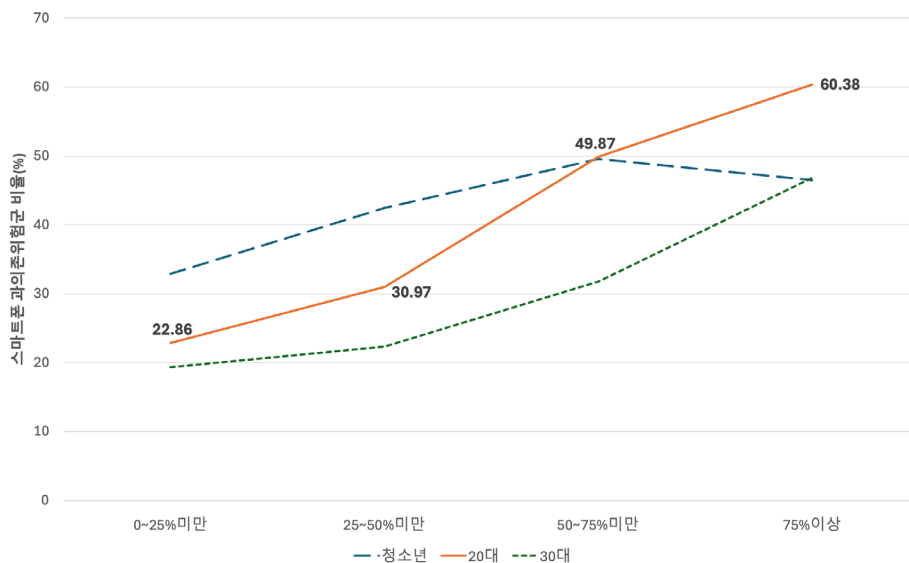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최근 지식경영연구 26권 1호에 게재된 이진우 연구교수의 논문 “숏폼 도입이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친 영향”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된 숏폼 콘텐츠가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2021년 국내에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 서비스가 도입된 것을 중심으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20대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 변화를 이원고정효과 이중차분 분석 방법으로 살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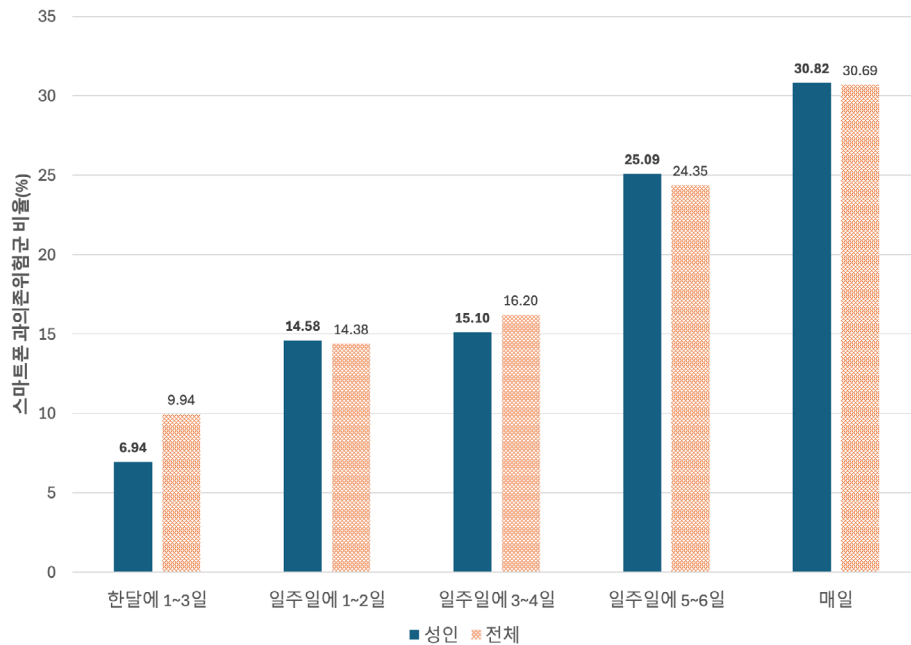
연구에서 사용된 이중차분 식별 전략은 특정 정책이나 환경 변화가 야기한 영향을 측정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대 그룹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다른 SNS를 주로 사용하는 그룹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숏폼 콘텐츠 서비스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숏폼 콘텐츠 도입 이전과 이후의 OTT 이용 빈도 변화를 두 집단 간에 비교함으로써, 숏폼 콘텐츠 도입이 실제로 스마트폰 과의존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숏폼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인스타그램을 주요 SNS로 사용하는 20대 그룹에서 (통제집단과 대조적으로) OTT 서비스의 주당 이용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짧고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가 젊은 이용자들의 미디어 소비를 더욱 빈번하게 유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중차분 방법론을 적용하여 숏폼 콘텐츠 도입 전후의 변화를 보다 명료히 식별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엄밀성을 갖춘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1>에 따르면, 숏폼 사용 비중이 증가할수록 20대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숏폼 콘텐츠가 특히 20대 사용자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2>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시청 빈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숏폼 콘텐츠 사용 증가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연결성을 보다 명확히 뒷받침한다. 이는 20대가 숏폼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에 더욱 취약하며, 사회적 자율성과 통제가 부족한 대학생 및 취업 초기의 청년층이 특히 주의가 필요한 집단임을 암시한다.



<그림 1> 온라인 동영상 이용에 숏폼이 차지하는 비중과 과의존위험군 비율(2023년)



<그림 2> 온라인 동영상 이용 빈도에 따른 과의존위험군 비율(2022년)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숏폼 콘텐츠라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요소가 스마트폰 이용 패턴과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향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할 때,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

참고문헌

[1] 이건우 (2025). 숏폼 도입이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친 영향: 이원고정효과 이중차분을 통한 접근. 지식경영연구, 26(1), 1-16.

딥시크 쇼크, AI 패권의 규칙을 바꾸다: 제한이 낳은 혁신과 보안의 역설

조하늘 인턴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기존 AI 기업들의 위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업계가 이른바 딥시크 ‘쇼크’를 겪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비용’ 때문이다. 딥시크는 기존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드는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혁신적으로 절감된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했다. AI 개발의 비용 구조와 빅테크 중심의 승자 독식 구조를 깨뜨리며[1], 현 AI 업계에서 가격 인하 경쟁에 신호탄을 쏘 올린 것[2]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딥시크 쇼크가 AI 산업에 가져다준 의미는 뭘까? 딥시크는 ‘제한’이 ‘혁신’을 낳은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즉 공급 제한이 오히려 중국의 저비용 AI 모델 개발을 자극했다[2]는 것이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에 ‘도전’ 과제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3]한다. 마리나 장 시드니 공과대학교 부교수는 “제한 속에서도 창의성과 회복력을 키우는 것은 중국 정부의 기술 자립 정책과도 부합한다[3]”고 덧붙인 바 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분쟁은 격화되었다. ‘자본 집약적 접근’ 전략을 가진 미국은 ‘스타게이트’, 즉 트럼프의 주도 아래 AI 인프라 확보로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반면 딥시크의 등장으로 ‘효율 중심적 접근’ 전략을 가진 중국이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도전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양국 간 기술 우위 경쟁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글로벌 AI 패권 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미국의 제재가 중국 AI 산업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줬듯, 딥시크의 등장 역시 국내 AI 반도체 산업에 도전과 기회 모두 안겨주고 있다[4]. AI 시장의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기업의 전략과 시장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에게 각 기업의 고유한 강점 즉 AI를 활용한 새로운 효율성과 창의성을 살린 전략이 앞으로의 도전 과제[5]라고 분석된다.

반면 딥시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 투자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AI 시장은 메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선입견이 깨졌다[6]. 자본이 부족한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들에게는 딥시크가 쇼크가 아닌 희망을 주는 굿뉴스[7]가 된 것이다. AI 시장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하드웨어에 이어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의 상용화 역시 앞당겨질 것이라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딥시크의 등장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업체에 호재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상상인증권은 전망했다[6].

딥시크로 인한 AI 산업의 지각변동이 예고된 한편, 전 세계에서는 딥시크 사용 금지 물결이 일기도 했다. 바로 ‘보안’ 우려 때문이다. 딥시크 프라이버시 정책 약관을 보면, 사용 장비 정보는 물론 키보드 입력 패턴이나 리듬, IP 정보, 장치 ID에 더불어 쿠키(이용자의 개별 웹페이지 접속 기록)까지, 수집하는 정보가 매우 광범위하다[8]. 구글 검색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양의 20배에 달하는[9] 사용자들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경우엔, 사이버 공격이나 피싱에 대거 악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안에 있어 취약점이 지적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는 ‘딥시크 밴(Ban·금지)’ 현상이 이어지기도 했다[10].

결국엔 이런 혼란 속 ‘데이터 보안’이 딥시크가 촉발한 새로운 AI 경쟁 시대 속 승기를 쥐기 위한 열쇠가 아닐까. 데이터 보호 기술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5]해야 한국 기업들이 고객으로부터는 신뢰를, 또 세계로부터는 인정을 받아,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딥시크의 데이터 베이스 노출은 유럽연합이나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혹은 미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에 저촉되는 것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포브스는 지적한 바 있다[11]. 기업들이 글로벌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지 예의, 주시하는 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오늘날이다.

‘혁신이 패권에 도전해 글로벌 패러다임을 바꿔 놓다!’ 딥시크 쇼크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 한국은 물실했지, AI 기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자체적인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12] 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AI 기술의 ‘윤리적’ 논쟁에 대한 토론 또한 놓치 말아야 한다. 딥시크에게 보안 문제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AI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11], 이것이 바람직하고 “바른, ICT” 사고일 것이다. 🌐

참고문헌

- [1] Deloitte Insights. (2025). 딥시크가 촉발한 새로운 AI 경쟁 시대.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technology-media-telecommunications/2025/kr_Deepseek_r.pdf
- [2] 김나윤. (2025.02.03). 中 ‘딥시크’에 전세계 충격...미국과 중국 ‘AI 패권다툼’ 시작?. 뉴스트리.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502030009>
- [3] BBC NEWS 코리아. (2025.01.29). 딥시크 설계자: 량원평은 누구인가?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lyekllqnpwo>
- [4] 윤수은. (2025.02.03). 딥시크 출현에 AI 반도체 산업 지각변동 예고. 이코리야. <https://www.ekor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648>
- [5] 전시현. (2025.02.16). 딥시크 vs 딥리서치,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의 돌파구는 [The SIGNAL]. 한스경제.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408>
- [6] 황성완. (2025.02.03). 中 AI모델 ‘딥시크’ 충격...네이버·카카오 ‘AI 패러다임’ 바꿀까. 토크데일리. <https://www.topdaily.kr/articles/101128>
- [7] 최재봉. (2025.02.16). 중국발 딥시크 쇼크...깨어나라! 대한민국 AI [최재봉의 AI생존코드].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792>
- [8] 박선민. (2025.01.31). 한국 AI 전문가 “딥시크, 키보드 입력 리듬까지 광그리 수집...中 서버에 저장”.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5/01/28/BKEAFPEJWFHIDBD2H55ZTN36SU/
- [9] 원호섭. (2025.02.03). “中 딥시크 쓰지 마”...정보 유출 우려 증폭에 美 텍사스 정부, 대만 디지털부 등 줄줄이 사용 금지. 미라클아이. <https://www.mk.co.kr/news/it/11230708>
- [10] 오로라. (2025.02.03). 보안 우려에...전세계 ‘딥시크 사용 금지’ 물결 일어.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2025/02/03/RHOA6BCYNNBAPGIFGASNURLIY/>
- [11] 정병일. (2025.02.03). 딥시크, 민감정보 100만건 이상 노출 사고. 뉴스프리존.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950>
- [12] 소노볼. (2025.02.11). 딥시크(DeepSeek) 등장과 AI 패권 경쟁. 브런치. <https://brunch.co.kr/@mentats1/641W>

이미지 출처 | Freepik

AI vs. 저작권법: 인간만이 창작자인가?

Jack Whitney 인턴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최근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법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OpenAI의 이미지 생성 도구인 DALL-E만 해도 하루 200만 개의 이미지가 생성될 정도로 사용자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저작권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AI가 만든 콘텐츠의 법적 소유권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7월,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작품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2]. 인간이 직접 창작한 작품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중국에서는 2023년 말 AI가 만든 콘텐츠에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중국 법원은 AI가 생성한 작품이 “개인화된 창작물”이라고 판단하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 이처럼 국가별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도입하며, AI 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AI 모델의 훈련 데이터 공개 의무화이다. 즉,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어떤 자료에서 왔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AI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5].

현재 AI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미국 언론사 트리뷴 퍼블리싱은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훈련 과정에서 자사 기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6]. 한편 이미지 라이선스 회사인 게티 이미지는 AI 이미지 생성 모델인 Stable Diffusion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학습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7]. 이들 소송의 핵심 쟁점은 AI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학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이다. 원고 측(미디어 및 콘텐츠 기업)은 AI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측(AI 개발사)은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AI가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 및 AI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강화에 있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법적 논의와 판례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1] OpenAI. (2022). DALL-E, 대기 목록 없이 이용 가능. OpenAI 블로그.
- [2] 미국 저작권청. (2024). 저작권과 인공지능, 제1부 디지털 복제 보고서.
- [3] 베이징 인터넷 법원. (2023). 민사 판결 11279/2023.
- [4] 컬럼비아 과학기술법 리뷰. (2024). 생성형 AI가 저작권법을 어떻게 뒤흔드는가.
- [5] 유럽 연합. (2024). 인공지능에 관한 규정 (EU) 2024/1689.
- [6] AP 통신. (2024). OpenAI 소송: 미국 주요 신문사 8곳, ChatGPT 제작사 및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
- [7] CNN 비즈니스. (2023). Getty Images, 인기 AI 아트 도구 제작사를 상대로 사진 도용 혐의로 소송 제기.

이미지 출처 | Freepik

캘리포니아에서 연세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잇다: 바른ICT 글로벌 인턴들의 도전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2025년 봄학기, 캘리포니아 대학교 해외 교육 프로그램(UCEAP)을 통해 4명의 글로벌 인턴과 함께 한다. 이들은 의학부터 심리학, 공중보건, 컴퓨터 과학까지 서로 다른 배경에서 모여, ICT와 인간의 삶이 교차하는 다양한 이슈를 탐구할 예정이다. 이 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포부를 소개한다.



Alyssa: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C Berkeley)에서 분자세포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Alyssa Yeoh입니다. 전공 내에서도 면역학과 분자의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과 자가면역 분야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봄학기에는 해외에서 공부하며 제 시야를 넓히고, 더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른ICT연구소 인턴십은 제 전공 분야와 연결되는 좋은 기회인데요, AI 기술을 활용하여 공중보건, 사회 복지, 소외계층 문제 및 질적 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는 UC 버클리에서 의학 관련 교외활동을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의학 관련 학생단체 리더로 활동했고, UCSF 병원에서 질적 연구와 실험 연구를 병행하기도 했으며, 저소득 지역의 아동들에게 STEM 교육을 제공하는 봉사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인턴십 기간에는 정 교수님께서 주시는 과제를 하이브리드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바른ICT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대가 큼니다.



Claire: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바바라(UC Santa Barbara)에서 심리학 및 뇌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부생 Claire(최유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인지심리학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ICT와 심리학이 만나는 접점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바른ICT연구소 인턴십을 통해 AI와 기술의 사회적 측면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러한 기술이 인간의 뇌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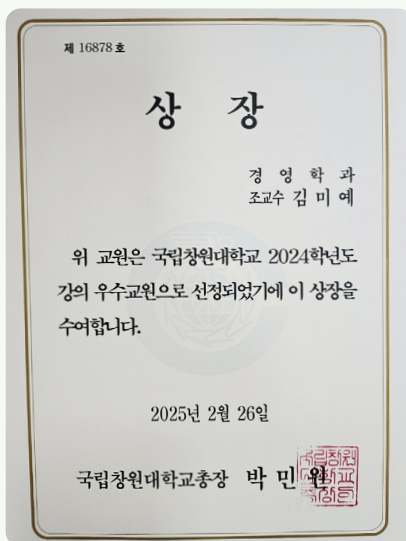
Piruzza: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UC Irvine)에서 공중보건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환학생, Piruza입니다. 저는 건강과 의료 분야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말 졸업 후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학기 동안 바른ICT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어 무척 기대됩니다. 특히 저는 게임이 인간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를 사례연구로 발전시켜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디오 게임(특히 FPS와 같은 일인칭 슈팅 게임)을 플레이할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개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할 계획입니다.

게임 중 플레이어가 캐릭터의 죽음과 같은 좌절 상황을 겪을 때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적 반응이 플레이어의 전반적인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교환학생 생활과 인턴십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모토는 ‘인생은 짧으니 적어도 한 번쯤은 모든 것을 시도해 봐야 한다’입니다. 저는 후회 없는 삶을 믿으며, 이번 인턴십과 같은 소중한 연구 기회와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합니다.



Tony: 안녕하세요, 저는 UC 샌디에이고에서 수학-컴퓨터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생 Tony Vuong입니다. 저는 기술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바른ICT연구소에서 다루는 연구 주제 중 일부에 익숙합니다. 이번 인턴십 기회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폭넓게 확장하고자 합니다. 학부 생활의 마지막 학기를 연세대학교에서 보내며 앞으로의 대학원 진학 가능성에 대비해 연구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바른ICT와 함께한 김미예 교수, 국립창원대 우수강의상 수상



국립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김미예 조교수가 2024학년도 강의 우수교원으로 선정되어 2025년 2월 26일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뛰어난 교육 역량과 헌신적인 학생 지도로 학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이전에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까지도 악성 댓글 관련 공동 연구를 통해 바른ICT연구소와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

정리 |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이건우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채용공고

채용분야

- 공학 분야: 컴퓨터 사이언스/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AI), 머신러닝(딥러닝) 등 관련 분야
- 사회과학 분야: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등 관련 분야

수행업무

- 바른ICT연구소 연구방향과 관련된 연구수행
- 국내외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과 교류 및 공동 연구

지원방법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연구실적 목록을 이메일로 제출 (barunict@barunict.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barunict.kr, 02-2123-6694 참조

바른ICT연구소 SNS를 소개합니다

바른ICT연구소는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올바른 ICT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https://youtube.com/channel/UCjfXpX92IIUfKQUmwE_BqsQ

네이버 블로그
바른ICT연구소



<https://m.blog.naver.com/barunict>

인스타그램
barunict



<https://instagram.com/barunict>

- * 본 연구소의 바른ICT뉴스레터는 국내외 우수 ICT 연구 동향 및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되는 외부 기고글(칼럼, 글로벌 뉴스 등)은 연구소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 바른ICT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news@barunict.kr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Publisher 김범수 | Editor-in-Chief 이견우
Editor 김초해, 김예은, 장서윤 | Designer 김한나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302동 연세·삼성학술정보관 720호
02-2123-6694 | www.barunict.kr (국문), www.barunict.org (English)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